

朝鮮後期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의 刊行에 관한 研究

A Research on the Anthologies Published in Gyoseogwan Inseocheja
in the Late Joseon Period

정진웅(Jung, Jin-Woong)*

◁ 목 차 ▷

- | | |
|---------------------------------|--------------------|
| 1. 緒言 | 4.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과 黨派 |
| 2.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의
刊行主體 | 5. 結言
<참고문헌> |
| 3.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의
時期區分과 形態的 特徵 | |

<초 록>

이 연구는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간행주체에 따라 어떠한 문집이 간행되었으며, 간행된 문집은 시기별로 어떠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이 당파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수령에 의한 문집 간행과 시기별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였는데, 지방수령이 문집의 간행을 주도한 경우는 인쇄자금을 활자가 보관된 교서관에 보내 인쇄하도록 하고, 그가 봉직할 지방은 발행소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별 형태적 특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되었다. 이것은 교서관인서체자가 여러 차례 구조되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교서관인서체자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문집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교서관인서체자를 연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要語 : 校書館印書體字, 文集, 黨派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of anthologies published in Gyoseogwan Inseocheja by publisher and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by period. It also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ation of such anthologies with political parties.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과정(j1118w@paran.com)

접수일: 2007년 5월 9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ublication of anthologies by local authority leaders and their physical features by period. It is assumed that when local authority leaders were in charge of publishing anthologies, they sent money Gyoseogwan in order to print them in Gyoseogwan Inseocheja, and put their local government offices as a publishing office.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ose anthologies can be grouped into four according to period, which means that Gyoseogwan Inseocheja were cast several times.

This research is limited in that only the anthologies, but not all publications published in Gyoseogwan Inseocheja were examined; however, it is still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Gyoseogwan Inseocheja.

Key words : Gyoseogwan Inseocheja, Anthology, Political Party

K C I

1. 緒言

조선후기 校書館印書體字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이 활자는 금속활자이면서 기록상으로 鐵로 주조된 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관부활자¹⁾이면서 사가의 문집에 대다수 이용되었으며, 印書體라는 새로운 활자체가 도입되어 조선후기까지 이어지는 등 이전의 금속활자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활자로 한국고인쇄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교서관인서체자가 지니는 인쇄사적 의미는 크나 이 활자의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전체 활자의 연구 중에 일부분으로 수록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문집의 간행에 쓰인 이 활자의 간본과 간행배경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고 그 특징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서관인서체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활자명칭, 간본의 종류, 사용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前間恭作²⁾은 그의 저서에서 이 활자를 唐字라 명명하였고 한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록자를 대신할 만한 소형 鑄字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시기를 顯宗 9년(1668)으로 보았다. 그는 이 활자를 戊申字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활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김석주를 중심으로 老論四大臣의 문집들을 통틀어 ‘老論字’, 南九萬의 문집을 시작으로 해서 尹舜學의 문집까지 ‘少論字’, 노론자와 소론자를 합하고 補鑄하여 英祖 46년(1770)에 『東國文獻備考』를 간행하였는데 이 활자를 ‘備考字’라고 명명하고 있다.

金元龍³⁾은 이 활자는 私家의 문집 인쇄에만 거의 사용되었고 반드시 芸閣에서 인출한 확증도 없으므로 운각활자보다는 文集字라고 명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활자는 明 中期 이후 淸朝에 걸쳐 사용된 印書體字를 모각한 것이며,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 활자로 간행된 문집과 문집의 기록을

1) 김두중은 그의 저서 『韓國古印刷技術史』에서 私鑄活字의 반대되는 단어로 官府活字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官府活字’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 前間恭作, 『朝鮮の板本』(福岡: 松浦書店, 1937), 69-73.

3)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郷土서울』 7號(1959), 27-35.

근거로 교서관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 활자를 모각하여 私鑄活字로 인쇄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白麟⁴⁾은 앞의 두 학자의 명칭문제에 대해 제기하면서 활자명을 芸閣印書體라고 통칭하고 이 활자가 크게 5가지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즉, 「息庵先生遺稿」의 印書字, 「文谷集」의 印書字, 「藥泉集」의 印書字, 「玉吾齋集」의 印書字, 「東國文獻備考」의 印刷字로 구분하였고, 이 활자들을 설명하면서 息庵集鐵字, 文谷集印書字, 癸卯印書字, 庚辰印書字, 庚寅印書字라고 명명하고 있다.

孫寶基⁵⁾는 이 활자가 낫쇠가 아닌 무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명나라 판본과 관계가 깊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활자를 西紀로 표기하여 최초의 간본인 「樂全先生歸田錄」을 중심으로 1684년 운각무쇠자, 「藥泉集」을 중심으로 1723년 운각무쇠자Ⅱ, 「玉吾齋集」을 중심으로 1760년 운각무쇠자Ⅲ, 「東國文獻備考」를 중심으로 1770년 운각무쇠자Ⅳ로 구분하고 있다.

金斗鍾⁶⁾은 이 활자의 鑄成時期와 字體의 차이로 구분하여 제1교서관인서체자, 제2교서관인서체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활자의 인본들을 조사하였는데 제1교서관인서체자의 인본들은 肅宗 10년(1684)경부터 英祖 36년(1760)경까지 계속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제2교서관인서체자는 景宗 3년(1723)부터 哲宗 8년(1857)까지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千惠鳳⁷⁾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했으며, 교서관인서체자로 명명하고 그 판본의 느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활자의 명칭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며⁸⁾ 활자의 유래와 주조, 판본, 계통, 간행 장소 등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는

4)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의 形態書誌學的 研究(上),” 『韓國史研究』 3(1969), 523-527.

5) 孫寶基, 「금속활자와 인쇄술」(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244-255.

6)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312-319.

7) 千惠鳳, 「韓國古印刷史」(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6).

8) 윤상기는 이 활자를 부르는 여러 명칭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활자명이 사용된 시기, 사용한 학자들의 수, 사용된 책이나 논문 수, 최근에 많이 사용된 활자명, 계열활자명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활자의 표준 활자명으로 ‘校書館印書體字’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6집(1998), 323-331).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선후기 문집간행에 쓰인 교서관인서체가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하였던 현전하는 문집은 선행연구와 각종 목록, 실물자료 등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문집은 총 93종으로 이를 표로 나타내면 <부록>과 같다. 조사된 93종 중에는 補字가 많이 섞여 있는 판본이나 기존의 형태적인 특징과 다른 판본 등이 있어 교서관인서체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기 힘든 판본도 있다. 이는 별도로 표시 하고 주요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참고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문집이 어떠한 간행주체에 의해서 간행되었으며 그 간행주체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형태적 특징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이 당파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의 刊行主體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주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왕명에 의한 간행, 사제관계에 의한 간행, 후손들에 의한 간행, 지방 수령에 의한 간행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뉜 간행주체들은 어떠한 특징으로 문집을 간행하였는지 살펴보겠다.

2.1 王命에 의한 간행

조선조 이래 왕명에 의한 문집의 간행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이 간행되었던 肅宗 10年(1684)頃부터 憲宗 6年(1840)까지는 왕명에 의한 문집의 간행은 전체 93종 중 5종에 그치고 있다.

<표 1> 왕명에 의해 간행된 문집

서명	저자	간년	권책수	형태사항	소장처	비고
尤庵先生文集	宋時烈	1719	167권63책	11行20字, 上下2葉花紋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등	「肅宗實錄」肅宗 43年 7月 丙辰 ⁹⁾
重峰先生文集	趙憲	1748	20권10책	10行20字, 上黑魚尾	규장각, 장서각	「英祖實錄」英祖 16年 7月 丙戌 ¹⁰⁾
松溪集	李滄	1774	8권3책	10行20字, 上白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등	「松溪集」冊末 ¹¹⁾
江漢集	黃景源	1790	32권15책	10行20字, 上白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正祖實錄」권24, 正祖11年 12月 癸丑 ¹²⁾
雅亭遺稿	李德懋	1796	8권4책	10行20字, 上白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雅亭遺稿」 「跋」 ¹³⁾

왕명에 의해 관부에서 개인의 문집을 간행해 준다는 것은 그 가문에 큰 명예가 되었으며 이제까지 個人的, 家族的, 朋友的 차원의 문집의 편찬과 간행이 政治的 차원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조선전기 특히 성종시기에 이르면 성종의 文士養成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의 문집 간행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¹⁴⁾ 그러나 조선후기에

9) 「肅宗實錄」肅宗43年 7月 丙辰條.

“提調閔鎮厚曰 先正臣宋時烈, 歿已久矣 而文集尚未刊行 誠是欠事 今聞其子孫門生 方欲付之剞劂 而卷帙浩大 未易始工云 自校書館刊行 似爲得宜矣 上曰 曾前同春集 亦以特命刊出矣 今亦分付校書館刊行.”

10) 「英祖實錄」英祖16年 7月 丙戌條.

“引見先正臣趙憲五世孫燦 問先正行蹟 燦對甚悉 上嘉之 又問 先正有文集乎 對曰 有之又問刊行否 對曰 力詘未能也 命芸閣刊印 頒給其子孫及書院.”

11) 李滄, 「松溪集」冊末.

“聖上卽祚四十九年癸巳十二月二日 上特命臣鎮翼 持高祖臣忠敬公遺藁 入待于集慶堂 命臣讀之 讀訖 仍令芸館刊進.”

12) 「正祖實錄」권24, 正祖11年 12月 癸丑條.

“遺稿 依故重臣黃景源例 斯速印給事分付.” 이 실록기사는 정조가 서명응의 문집을 간행 해주라는 기사이다. 강한집의 간행에 관한 직접적인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를 유추해보면 강한집은 왕명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李德懋, 「雅亭遺稿」跋.

“孰有如懋官 而況聖君之知耶 沒而恩榮益備 隱卒錄孤 比於近臣 命印遺稿 費出內帑 懋官雖死 猶無死也.”

14)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이러려 왕명에 의한 개인 문집 간행은 표 1에서처럼 5종에 그치고 있다. 왕명에 의한 문집의 간행이 줄어든 것은 정치적인 원인이 많았을 것이다. 조선후기는 당쟁이 어느 때보다 심한 시기이고 관부활자인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정계와 학계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문집 속에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재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집들을 간행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고¹⁵⁾ 왕명에 의한 간행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했다.¹⁶⁾

正祖年間(1776-1800)에 개인 문집의 간행과 관련된 실록기사를 보면 「訥齋集」과 「李忠武公全書」의 간행 기사를 볼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 문집들은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되지 않고 정유자로 간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정유자는 교서관인서체자에 비해 큰 활자이므로 개인 문집들을 간행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다. 또한, 純祖年間(1801-1834) 이후부터는 왕명에 의한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관부 관계의 서책은 整理字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교서관인서체자는 사가 서책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에 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2.2 사제관계에 의한 간행

교서관인서체자를 사용하여 문집을 간행하였던 시대에는 문집을 누구나 간행할 수 없었다. 당대에 학계와 정계를 대표할 수 인물들만이 문집을 간행할 수

15) 문집이 정치적, 사상적인 내용을 수록한 경우 많은 수난을 당했다. 남명집과 내암집의 경우 輯覽을 당하기도 했으며 내용에서도 많은 산삭을 당하였다. 또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문집도 많다.

16) 예를 들면, 조선 정조(正祖)는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朴趾源의 「熱河日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참신한 문장에 대하여 그것이 소품 소설이나 擬古文體에서 나온 잡된 문체라 규정하여 정통적 古文인 黃景源·李福源 등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문장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황경원의 「江漢集」을 간행토록 하였다.

17) 「訥齋集」, 「李忠武公全書」은 「正祖實錄」 권43 19년 乙卯條에 이들의 문집을 인출하라는 기사가 보인다.

있었고, 현전하는 당대 문집들 역시 그런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의 문집을 간행할 때 편찬 또는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간행은 스승의 인격과 학문, 행적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개인에게는 학문의 전승이라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¹⁸⁾

<표 2> 제자에 의해 간행된 문집

서명	저자	간년 ¹⁹⁾	권책수	형태사항	소장처	비고
農巖集	金昌協	1709(序)	36권18책	10行20字, 上黑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문인 金時佐가 간행 ²⁰⁾
圃陰集	金昌緝	1726	6권3책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문인 영남관찰사 俞拓基가 간행 ²¹⁾
柳下集	洪世泰	1730	14권7책	10行20字, 上黑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문인 金鼎禹가 간행 ²²⁾
三淵集	金昌翁	1732	36권18책	10行20字, 上黑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문인 영남관찰사 俞拓基가 간행 ²³⁾
本庵集	金鍾厚	1798	12권6책	10行20字, 上白魚尾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문인 나주목사 任燁이 간행. ²⁴⁾

<표 2>에 보이는 5종의 문집들은 모두 제자가 스승을 위해 간행한 문집들이다. 간행주체인 제자들이 교정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자 집안의

- 18) 서정문,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북악사론』 제3집(1993), 216.
- 19) 간기가 없는 경우 서, 발문의 수록 년도에 따라 간년을 추정하였다. 아래의 표들도 이와 같다.
- 20) 金昌協, 『農巖集』序.
“我仲氏農巖先生 既沒之踰年 門人金時佐等 哀輯其遺文 略有刊汰編次 爲三十餘卷 將以印行于世.”
- 21) 金昌緝, 『圃陰集』跋.
“門人俞公拓基 以嶺南伯 謀印行于世.”
- 22) 洪世泰, 『柳下集』墓誌銘.
“公物之六年 趙君及門客金君鼎禹 謀鳩財僱工 印行其遺集凡十四卷.”
- 23) 金昌翁, 『三淵集拾遺』年譜.
“門人俞拓基 觀察嶺南 出俸金用活字 印行于世.”
- 24) 金鍾厚, 『本庵集』序.
“門人錦城宰任君燁 方謀剞劂.”

후손들이 교정과 편차를 정한 것이고 문인들은 재물을 내어 간행한 것이다.

제자들이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을 주도하였다면, 제자들은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있는 고위 관직이거나 안동김씨인 金時佐와 같이 권문세가의 자손들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문집을 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3 후손들에 의한 간행

간행된 문집의 대다수는 후손들에 의해 간행된 것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문집을 간행한 것은 자기가문의 宣揚을 證票로 집약되어 이뤄진 것이었다. 선조송배, 문벌중시의 신분사회에 있어서 이름이 알려진 조상을 중심으로 혈연적 결속이 문집간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²⁵⁾

교서관인서체자가 주로 사용되었던 18세기에는 문중의 역할이 중요시 되던 시기였으므로²⁶⁾ 자신의 문중을 위해서 많은 문집들이 간행되었다.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된 문집들 대부분도 후손들에 의해 간행된 문집들이다. 이들의 문집 간행은 당대의 권력과 재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교서관인서체자는 관부 활자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재정이 필수 조건이었다. 실제 교서관인서체자를 이용한 문집의 저자를 살펴보면 文谷 金壽恒, 藥泉 南九萬, 明齋 尹拯, 漢湖 金元行 등 당대 학계와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런 인물들의 후손들은 선조를 이어받아 정계에 입문하였고 관직생활을 거치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 집안은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문집을 간행하는 데 재정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었고²⁷⁾ 관부활자를 이용함으로써 권세를 들어낼 수 있어 더욱 집안을 선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25) 柳鐸一, 『嶺南地方出版文化論考』(부산: 世宗出版社, 2001), 381.

26) 이 시기에 이르러 '宗契', '門中契'라는 조직이 많이 생겨나 자기문중의 결속력을 다졌다.

27) 金斗鍾, 前掲書. 319. 김두중은 권력을 쥐고 있었으면 校書館 관계 官員들의 소개나 호의로써 印刷匠人들에게 약간의 役價를 지급하고 문집을 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2.4 지방 수령에 의한 간행

지방 수령이 간행한 문집은 英祖 11년(1735)에 간행한 「夢悟齋集」이 있다. 몽오재집은 尹淳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호남의 관찰사인 李壽沆은 본래 저자를 알지 못하는 사이이나 저자의 시를 좋아하여 세상에 전한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²⁸⁾ 이처럼 저자와 지방수령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시와 글들을 좋아하여 문집을 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이고 있다.

몽오재집 같이 저자와 관계없는 인물들이 지방수령으로 있으면서 간행한 경우 외에 사제간이나 형제관계의 인물들이 지방수령으로 나가 문집을 간행한 경우는 표 3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문집들이 지방에서 간행하였고²⁹⁾ 목판본일 경우 판목을 수령 관할 지역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서관인서체자는 교서관 소유의 활자이므로 지방에 보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간행 장소의 문제인데, 肅宗 25년(1699)에 간행된 「文谷集」跋文에

(문곡집)편차는 이미 정해졌으나 인쇄할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不肖 昌集이 마침 강화에 부임하라는 명을 받게 되어 약간의 힘을 써 芸館活字를 얻고 몇 부를 인쇄했다.³⁰⁾

이 발문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지만³¹⁾ 문곡집의 간행에 관한 기록은 저자의 아들 金昌翁의 문집(三淵集)에 수록된 「先集印役匠人宴飲時小記」에 자세히 보인다.

28) 沈尙鼎, 「夢悟齋集」序.
 “湖西伯李君叔謙 意氣人也 素不識聖擬 愛其詩 俱至於無傳 歸俸錢 印於芸閣.”

29) 문집의 간행은 지방수령의 힘으로 公資로 각관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金允美, “韓國文集의 編纂樣式에 關한 考察,”(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30) 金壽恒, 「文谷集」跋.
 “編次既定 患無力剗刷 會不肖昌集 受命居留江都 粗得拮据 取芸館活字 印出若干本”

31) 金元龍은 「李朝後期の 鑄字印刷」에서 ‘이 활자가 운각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발문에서 운각활자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운각활자체일뿐 운각 소유의 활자가 강화까지 흘러 나왔다 하면 그것은 不正이니 그것을 발문에 적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관부 소유의 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이 글은 문곡집을 간행하면서 印役작업이 끝나자 치하하는 의미에서 인역작업 관련 인물들과 酒宴을 베푼 상황을 기록한 글로 김창흡은 印役의 장소를 강화에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均字匠, 墨印匠(印出匠) 등의 장인들을 한양에서 데려왔다고 하였다.³²⁾ 여기에서 인역의 장소를 강화에 설치하였다는 것은 활자를 강화에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인쇄업무는 교서관에서 이뤄지고 강화에서는 인쇄된 문집을 배포하는 등의 발행소 개념으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 관부소유 활자와 관부 소속의 장인들이 지방으로 이동해 인쇄업무를 행하였다면 교서관의 기능 중에 하나였던 인쇄 업무는 혼란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앞의 몽오재집의 서문에서처럼 지방수령이 봉급을 교서관에 보내 인쇄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가 봉직할 지역에서는 인쇄된 문집을 발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문곡집 외에 지방에서 발행소 기능을 행하였을 것으로 여기지는 기록이 보인다. 「澤齋遺唾」간기에 ‘崇禎庚辰二月重印于江華府’ 라는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明齋遺稿」의 간행사실을 알려주는 年譜에도 ‘辛亥五月 又會神定寺校印遺稿寺在公州溪嶽之西’ 라는 기록이 보이고, 「童土集」의 간기에 ‘先生下世後七十四年之辛酉(1741)季春 以鐵字印出于墓下丙舍 凡印三百本’ 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기록들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쇄업무는 교서관에서 행해졌고, 그 인쇄된 문집을 강화나 공주 등지에서 발행하였을 것이다. 표3에서 보이는 지방수령들의 주도로 간행된 문집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32) 金昌翁, 「三淵集」, 「先集印役匠人宴飲時小記」

“先集印出之役 設于江都者 … 本府教鍊官二人 曰車有紀·金萬鎰 隨而偶坐 面南焉 諸工在堂者曰韓好善·韓永俊·韓業祥·劉彥墨 皆南面東上 好善永俊等 是均字匠 而好善年長 故首坐 業祥刻手 而彥墨印匠也 曰金成胤·金壽剛·金斗漢·林守儉·車五達·車轍 皆北面東上 是爲列字匠 而序各以齒 揚之論功定次 均字爲最 而刻與印亞之又咸自京來。”

<표 3> 지방에서의 문집 간행

서명	저자	간년	간행장소	소장처	비고
退憂堂集	金壽興	1710년(말)	臨陂縣 ³³⁾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丈巖先生集	鄭澹	1756년	永嘉(안동) ³⁴⁾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北軒居士集	金春澤	1760년	西邑(울주) ³⁵⁾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網菴草稿	申琬	1766년	星山 ³⁶⁾	규장각	
月塘先生集	姜碩期	1772년	陰城 ³⁷⁾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凌壺集	李麟祥	1779년	평양감영 ³⁸⁾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芸窩集	洪重聖	1784년	평양감영 ³⁹⁾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霽軒集	沈定鎭	1786년	평양감영 ⁴⁰⁾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亮谷遺稿	李義吉	1789년(말)	同福 ⁴¹⁾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등	
茅洲集	金時保	1790년	安義 ⁴²⁾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本庵集	金鍾厚	1798년	錦城 ⁴³⁾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 33) 金壽興, 「退憂堂集」跋.
“今公嗣子昌說守臨陂縣 俸捐鳩工 印以活字.”
- 34) 鄭澹, 「丈巖先生集」識.
“小子於昨年夏。蒙恩出守永嘉 竊念前頭事故有未可知 家藏草稿難保傳遠 失今不圖 入刊無期 遂捐俸募工 用鐵字始役 閱七箇月 功迺告訖.”
- 35) 金春澤, 「北軒居士集」跋.
“不肖忝守西邑。謀欲鋟梓…活字先印七冊.”
- 36) 申琬, 「網菴集」跋.
“先人與叔父始共揀選編次 遂成刊本 而患乏事力 迄未梓行 居恒憂懼 適會宗姪大孫出牧 星山 嚶乃略損益重校勘而託之 俾付劂闕氏.”
- 37) 姜碩期, 「月塘先生集」跋.
“不肖蒙恩爲陰城宰 遂捐俸募工 以活字印若干本行焉.”
- 38) 李麟祥, 「凌壺集」跋.
“余按關西節 既刻李胤之丹陵稿矣 海平尹子穆氏馳書謂盍續刻元靈凌壺稿 已而元靈之子英章抱遺軀來謁 子穆所刪定也 遂以活字印出.”
- 39) 洪重聖, 「芸窩集」跋.
“舍弟明浩適守西郡 用活字印行.”
- 40) 沈定鎭, 「霽軒集」跋.
“荷棲方按溟營 將謀鋟遺稿 古朋友之道也.”
- 41) 李義吉, 「亮谷遺稿」跋.
“嗣孫榮運 宰同福縣 以活字印公遺集.”
- 42) 金時保, 「茅洲集」跋.
“家素貧劂闕無力 適從子在淳 宰安義 三年儉俸鳩財 用芸閣活字 印若干本.”
- 43) 金鍾厚, 「本庵集」序.
“門人錦城宰任君煇 方謀劂闕.”

한편,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부수는 다른 문집과 달리 관부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수를 인출하였다.

「藥泉集」과 「昆侖集」의 간기에는

上之三年癸卯春 以鐵字始印役 一百四十餘日而訖 凡印三百本⁴⁴⁾
乙巳夏 以鐵字入印 凡九十餘日而訖工印 得四百餘本⁴⁵⁾

이들 간기에는 며칠간에 걸쳐 몇 부를 인출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 데 이 기록을 근거로 하루에 몇 판을 찍었는가를 계산할 수 있었다. 약천집의 경우 34권 17책으로 140여일간 300부를 인출하였으므로 하루에 약 2970판을 찍었다는 계산이 나오며, 곤륜집의 경우 20권 10책으로 90여일간 400부를 인출하였으므로 하루에 약 3250판을 찍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부수를 찍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록 외에 「惻菴集」은 220여건⁴⁶⁾, 「童土集」은 300건⁴⁷⁾을 인출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일반 문집은 보통 종이 귀해서 많은 부수를 찍어내지 못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만 인쇄하였는데 대개는 몇 십 부에 그쳤고 100부를 넘지 못하였다고 한다.⁴⁸⁾ 그러나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이 활자로 인출한 부수는 220~400부로 많은 부수를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문집들이 刻手 등의 장인들에게 임금을 주고 印役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교서관인서체자본의 문집들은 명문고관 사람들의 문집들로 그 권세를 이용하여 문집을 인출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절약이 되며⁴⁹⁾ 각 장인

44) 南九萬, 「藥泉集」 「總目」

45) 崔昌大, 「昆侖集」 「總目」

46) 申暲, 「直菴集」 권10.

“季姪曙之男大權爲先生所後孫 因買屋鳩財 以活字印行 戊午季秋始役 臘月訖事 而搨得二百二十餘件.”

47) 尹舜學, 「童土集」

“先生下世後七十四年之辛酉季春 以鐵字 印出于墓下丙舍 凡印三百本.”

48)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 시민강좌』 37(2005), 79.

49) 金斗鍾, 前掲書. 319.

들을 부리기에 편리하였다는 데 1차적인 원인이 있고 문집의 저자가 조선후기 학계와 정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인물이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많은 양의 문집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집안이나 문중에서 문집을 간행할 때 家藏하고 있던 선조의 문집을 뒤에 附集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저술 양이 적어 단독적으로 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덜고자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집의 형태는 목판본이나 목활자로 간행한 문집들에게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특징이라 하겠다.

표4를 보면 교서관인서체자의 문집들 중 많은 양이 집안사람들의 문집들로 부집했음을 알 수 있으며 한명의 문집을 부집하는 것 외에 「東谿集」의 경우 두 명의 문집까지도 부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부집의 형태를 띤 판본

서명	저자	간년	판수	비고
葆翁遺稿	洪命一	1706년	8장	鶴谷集에 부집(부자)
愛懶子稿	洪濟猷	1730년	55장	耐齋集에 부집(재종형)
南谷遺稿	趙啓命	1741년	7장	東谿集에 부집(재종제)
聽涼軒稿	趙九鎮	1741년	7장	東谿集에 부집(삼종손)
白雲遺稿	吳載弘	1752년	11장	月谷集에 부집(종질)
竹醉藁	金濟謙	1758년(後序)	27장	夢窩集에 부집(부자)
大觀遺稿	李文輔	1759년(序)	10장	東溪遺稿에 부집(형제)
默齋遺稿	金楚材	1760년	11장	竹軒集에 부집(종질)
眞樂堂遺稿	金就成	1791년	23장	久菴集에 부집(형제)

3.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의 時期區別과 形態的 特徵

조사된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 93종 중에 최초의 간본은 肅宗 10년(1684) 서문

이 수록된 「樂田先生歸田錄」이고, 늦은 시기의 간본은 憲宗 6년(1840)에 간행된 「靑城集」이다. 이처럼 교서관인서체자는 150여년간 문집 등의 인출에 사용되었다. 오랜 기간 활자를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기도 하여 보자가 들어가는 등 형태적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다. 교서관인서체자본의 형태적인 변화는 活字體, 行字數, 魚尾模樣, 補字有無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肅宗 10年(1684)頃부터 景宗年間(1721-1723)까지, 景宗年間(1721-1723)부터 英祖 17年(1741)頃까지, 英祖 18年(1742)頃부터 英祖 35年(1759)까지, 英祖 36年(1760)以後 등 네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3.1 肅宗10年(1684)頃~景宗年間(1721-1723)

이 시기의 문집으로 조사된 것은 전체 93종 중에 15종⁵⁰⁾이다. 이때의 판본들을 전기교서관인서체자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 印書體 도입 시기이다. 이 활자체는 주로 명나라부터 수입해 온 明板印本들을 자본으로 주조되었다. 명나라 후기 嘉靖年間の 인본들이 이 시기에 인출된 판본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⁵¹⁾ 이 시기의 자체는 方筆로서 세로는 굵고 가로는 가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미모양에 있다. 다양한 어미모양이 나타나는데 17세기 이전까지는 상3엽화문어미나 상2엽화문어미가 보이지만 1700년도에 들어서면서 주로 上黑魚尾가 쓰이고 있으며 「瑞石先生集」 같은 경우는 無魚尾가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行字數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10行20字를 유지하고 있지만 1719년, 1720년 간행된 「尤庵先生文集」과 「雪海遺稿」는 11行20字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시기에 간행한 것으로 형태적 특징이 매우 다른 판본도 조사되었는데

50) 이 시기의 조사된 문집으로는 樂田先生歸田錄, 息庵先生遺稿, 文谷集, 白軒先生集, 澤齋遺唾, 瑞石先生集, 南岳集, 鶴谷集, 農巖集, 觀復菴詩稿, 退憂堂集, 葵窓集, 尤庵先生文集, 雪海遺稿, 壽谷集이 있다.

51) 金斗鍾, 前掲書. 319.

1712년의 간기가 수록된 「葵窓集」이다.⁵²⁾ 이 판본은 능화문이나 표지, 종이, 활자체에서 기존의 판본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2 景宗年間(1721-1723)~英祖 17年(1741)頃

이 시기에 조사된 판본은 전체 93종 중에 19종⁵³⁾이다. 이때의 판본들을 후기교서관인서체자라고 불리는데 이전의 판본들과 달리 글자체가 정연하며 가로, 세로 모두 가늘어⁵⁴⁾ 구분하기 용이하다. 오늘날의 인쇄체와 닮은 판본이 보이는 景宗 3년(1723)에 간행한 「藥泉集」과 그의 집안 문집들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문집들에는 총목 뒤에 이 책의 편찬과 간행 사실을 나타내는 간기가 보이지만⁵⁵⁾ 시기가 지날수록 이런 경향은 없어진다.

이 시기의 특징은 어미에 上白魚尾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의 문집들에 서만 보이며 1730년을 전후하여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상혹어미나 상2엽화문 어미가 나타난다. 글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以, 而, 也, 於’ 등이 변화되었는데 ‘於’가 변화가 두드러진다.⁵⁶⁾

52) 규장집은 실제 소장 도서관 목록인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등 규장집을 소장한 기관의 목록에서는 이 판본을 목활자로 보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日本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所藏 韓國本」.(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에는 이 판본을 교서관인서체자본으로 보았다.

53) 이 시기의 조사된 문집으로는 藥泉集, 晦隱集, 夢嚙集, 昆侖集, 淸冷子遺稿, 圃陰集, 西坡集, 耐齋集, 柳下集, 凝齋遺稿, 明齋遺稿, 三淵集, 夢悟齋集, 崧岳集, 老村集, 恕菴集, 童土集, 東谿集, 杜機詩集이 있다.

54) 千惠鳳, 「한국 서지학」(서울: 민음사, 2006), 382.

55) 「藥泉集」 이외에 1725년에 간행된 「昆侖集」, 이나 1729년에 간행된 「西坡集」에는 總目 뒤에 간기가 붙어 있으며 판식이 같다.

56) 이 시기의 판본들은 溪龍山 神定寺에서 간행한 「明齋遺稿」를 제외한 모든 판본에서 이러한 글자체를 보이고 있다.

肅宗後期~景宗年間		景宗後期~英祖 17年頃	
1700년 澤齋遺唾	1709년 觀復菴詩稿	1723년경 晦隱集	1729년 西坡集

<그림 1> '於'자의 변화

3.3 英祖 18年(1742)頃~英祖 35年(1759)

이 시기의 조사된 판본은 전체 93종 중에 10종⁵⁷⁾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전 시기(景宗年間~英祖 17年頃)와 活字體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 시기 후반에 補字가 조금씩 들어가 있던 했지만 보자가 더욱 많이 들어가 인쇄가 조잡한 느낌을 준다.

어미모양에 있어서도 上白魚尾와 上黑魚尾가 고루 보이고 있으며 花紋魚尾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行字數에서도 통일되게 10行 20字를 나타내고 있다. 전 시기와 차이는 위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於' 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於'자가 전 시기(景宗年間~英祖 17年頃)와 다르게 肅宗後期~景宗年間の 판본에서 보이는 '於'자로 돌아왔다.

3.4 英祖 36年(1760) 以後

이 시기의 조사된 판본은 전체 문집의 반을 넘는 93종 중에 49종⁵⁸⁾이다. 이

57) 이 시기의 조사된 문집으로는 迂齋集, 燕超齋遺稿, 十淸集, 重峰先生文集, 月谷集, 丈巖先生集, 寒圃齋集, 夢窩集, 桂南詩稿, 疎齋集이 있다.

58) 이 시기의 조사된 문집으로는 玉吾齋集, 東溪遺稿, 竹軒集, 北軒居士集, 二憂堂集, 打愚先生遺稿, 晉菴集, 悔軒集, 陽谷集, 陶谷集, 潛治先生集, 絳菴集, 牧谷集, 丹溪遺稿, 一菴集, 月塘先生集, 月汀先生別集, 松溪集, 約軒集, 屏山集, 春洲遺稿, 晚靜堂集, 水村集, 凝齋集, 靜默堂集, 亮谷遺稿, 凌壺集, 芸窩集, 霽軒集, 江漢集, 茅洲集, 久菴集, 華谷集, 雅亭遺稿, 商谷集, 本庵集, 修山集, 貞菴集, 漢湖集, 蒼霞集, 壽齋遺稿, 淵庵遺

시기에 이르러 이전과 다른 형태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英祖 36(1760)년에 새로 만들어진 활자와 관계가 있다.

英祖 36년(1760)에 간행된 「玉吾齋集」의 발문에는 “用芸館新鑄活字”라고 명기되어 있다.⁵⁹⁾ 옥오재집을 보면 景宗 3년(1723)에 간행된 「藥泉集」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똑같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약천집 이후 앞에서 언급한 시기처럼 보자가 많이 들어가 인쇄가 조잡해 보이는데 옥오재집의 경우 補字가 거의 없는 완전한 판본이다. 옥오재집 외에 「晉菴集」, 「北軒集」, 「梅軒集」 등을 통해 새로 新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집들은 모두 1760~1762년 사이에 간행된 문집들로 한결 같이 補字가 없고 활자의 판식이 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英祖 34년(1758)경에 洪鳳漢이 老論 四大臣의 문집을 간행하게 되는데⁶⁰⁾ 이들 문집들에는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四大臣의 문집(「寒圃齋集」, 「夢窩集」, 「疎齋集」, 「二憂堂集」)에는 刊記가 없지만 跋文과 後序의 기록을 통해 간년을 추정할 수 있었다. 「寒圃齋集」, 「夢窩集」, 「疎齋集」 경우 발문과 후서가 있어⁶¹⁾ 1758~1759년에 간행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들 문집의 어미모양은 上黑魚尾이며 활자에 보자가 많이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二憂堂集」 같은 경우 序, 跋文 등이 없어 간년을 추정할 수 없지만 앞의 세 문집과 달리 어미모양이 上白魚尾이며 보자가 없는 완전한 판본으로 위에서 설명한 옥오재집, 진암집, 북헌집, 회헌집과 판식이 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우당집이 앞의 세 문집과 달리 1760년경에 새로 주성된 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迹, 有心齋集, 洛涯金先生遺稿, 騏峰集, 桐江遺稿, 儉藏山人詩集, 蘭溪先生遺藁, 青城集이 있다.

59) 白麟과 孫寶基는 前掲書에서 이 기록을 언급하면서 校書館印書體字의 하나의 계통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다.

60) 「疎齋集」 「後序」.

“今判書洪公鳳漢 慨然任其事 印布四公之書 四公者 忠獻金公昌集 忠翼趙公泰采 及公從父弟忠愍公健命 與公而爲四也.”

61) 「寒圃齋集」에는 1758년 李復祥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夢窩集」은 1758년에 쓴 金元行의 後序가 수록되어 있으며, 「疎齋集」은 1759년에 쓴 李鳳祥의 後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英祖 36(1760)년경에 교서관인서체자가 새로 주조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의 補字가 많이 들어가 조잡하던 판본들이 새로운 주조로 인하여 완전한 판본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가 지날수록 補字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純祖年間과 哲宗年間の 문집들은 많은 보자가 혼입되어 인쇄가 조잡해 보인다.

이 시기의 형태적인 특징은 어미 모양이 주로 上白魚尾로 통일시 되다가 哲宗時期에 이르러 상2엽화문어미가 다시 나타난다. 또한 ‘於’자의 경우 다시 두 번째 시기(景宗後期~英祖 17年頃)의 글자체로 통일되어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시기 기존의 문집과 다른 형태의 문집이 조사되었는데 正祖 14년(1790) 간행된 『江漢集』과 正祖 18년(1794) 간행된 『華谷集』이다. 이들 문집은 기존의 문집에는 볼 수 없었던 編題가 보이며 강한집은 總目에, 화곡집은 서문에서 丁酉字가 사용되고 본문은 교서관인서체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다.

<표 5>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형태별 특징

시기	항자수	어미모양	‘於’자의 변화	보자 유무	비고
肅宗後期~ 景宗年間	10항20자 11항20자	상3엽화문어미 상2엽화문어미 상흑어미 무어미		초기 보자 없음. 후기 약간 들어감.	가로보다 세로획이 굵음
景宗年間~ 英祖17年頃(1741)	10항20자	상백어미 상흑어미 상2엽화문어미		초기 보자 없음. 후기 약간 들어감.	세로, 가로 가늘어짐.
英祖 18年頃(1742)~英 祖 35年(1759)	10항20자	상백어미 상흑어미		보자가 많이 혼입.	
英祖 36年(1760) 以後	10항20자	상백어미 상2엽화문어미		초기 보자 없음. 후기 보자가 많이 혼입.	

4.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과 黨派

당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회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게 생겨나는 정치현상이며 특히 성리학 중심주의였던 조선은 문치주의에서 파생된 당쟁으로 인하여 宣祖朝부터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당쟁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은 당의 생존에 사활이 걸려 있었고 여러 換局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날로 깊어져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당파에 대한 결집이 강하여졌으며 그러한 결집력은 학문과 사상에서 드러나며 결국 그러한 것이 개개인의 문집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교서관인서체자가 사용되었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는 당쟁이 치열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되었던 문집의 저자들은 당쟁과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인물들의 문집을 관부에서 간행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권력이 그들의 후손들과 정치적, 사상적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문집 간행을 통해 당시의 권력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된 문집 중에 최초의 것은 肅宗 10년(1684)경에 간행된 「樂田先生歸田錄」으로 이는 申翊聖의 저술인데 外孫인 金錫胄의 주도로 간행하였다. 김석주는 당시 왕실의 외척으로서 숙종 6년(1680)에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을 수립하였던 이른 바 庚申換局의 주역으로서 이후 송시열과 함께 정국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낙전선생귀전록은 관부에서 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자신의 저술인 「息庵先生遺稿」도 그의 아들인 金道淵에 의해서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후 당쟁은 서인이 주도하였지만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갈라졌다.⁶²⁾ 이후 肅宗 15년(1689)에 숙종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고자 하였으나

62) 노·소론의 분열에 대해서는 많은 異見이 있다. 1682년 김석주가 역모를 조작한 壬戌告變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었다는 說과 송시열과 윤증의 攘泥是非로 인해 분열되었다는 설, 공서와 청서의 설, 그리고 송시열과 박세채의 분열에서부터 분열되었다는 설 등 분분하다.

송시열 등이 반대하였고 이를 기회로 己巳換局을 단행하여 서인 세력을 축출하고 다시 남인 세력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남인 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5년 후인 肅宗 20년(1694) 일어난 甲戌換局으로 정계에서 물러난다. 이 시기에 교서관인 서체자로 간행된 남인계열 인물의 문집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집권하였고, 더욱이 갑술환국 이후 남인계열은 한동안 정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부의 활자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후의 정계는 숙종이 노·소론의 대립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국을 이끌어갔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된 문집들은 소론 계열의 인물들인 李景奭의 「白軒先生集」, 趙宗著의 「南岳集」 등이 간행되었고, 노론 계열의 인물들인 金壽恒의 「文谷集」, 金萬基의 「瑞石先生集」 등 노·소론 가리지 않고 섞여 간행되었다.

그러나 肅宗 42년(1716) 송시열과 윤증의 시비에 대해 숙종은 노론의 편을 들어주었다.⁶³⁾ 이것은 이른바 丙申處分이라 하는데 숙종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소론 계열의 인물들은 축출되고 노론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의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된 문집은 肅宗 45년(1719) 숙종의 명으로 인해 간행된 송시열의 「尤庵先生文集」이 있다. 이는 당시 노론 세력의 핵심 인물인 閔鎮厚의 주청으로 간행된 것으로 그들의 스승이며 정신적 지주였던 송시열의 문집을 간행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론의 집권 시기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노론 세력들은 장희빈 소생의 세자보다는 淑嬪 崔氏 所生의 연잉군(英祖)을 대권 승계로 목표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론들의 그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세자가 왕을 이었으니 그가 景宗이다. 경종이 세자 시절 소론 세력들은 세자의 보호를 당론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종이 즉위하자 정계에 다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경종이 즉위하여도 여전히 노론 세력들은 건재하였기 때문에 노·소론의 대결이 불가피하였으나 왕세제 대리칭정 문제와 睦虎龍의 고변⁶⁴⁾으로 인한 이른바 申壬獄事

63) 숙종은 “신유의서에는 윤증이 송시열을 비난한 글이 많지만 묘갈명에는 송시열이 윤선거를 욕한 내용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노론의 입장을 지지하였다.(『肅宗實錄』 권58, 肅宗 42년 癸亥條.)

로 노론사대신과 노론 계열 인물 60여명이 참혹한 변을 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소론 세력들은 집권하였으나 경종이 갑작스레 죽고 노론의 지지를 입은 영조가 즉위하게 되었다. 영조는 노론만을 두둔하다가 어느 때쯤 참화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판국이었기 때문에⁶⁵⁾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들을 고루 등용하는 이른바 탕평정치를 하게 된다. 영조 초반기의 탕평정책은 주로 소론위주의 탕평이었기 때문에 소론 세력은 여전히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英祖 17년(1741) 영조는 이른바 辛酉大訓을 반포함으로써 소론 세력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고 노론 위주의 탕평책을 전개해 나갔다.

경종의 즉위부터 英祖 17년(1741) 신유대훈이 반포되기 전까지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된 문집들은 노론 계열 인물들의 문집이 간간히 보이지만 대부분은 소론 계열 인물들의 문집들이다. 경종 시기에는 소론 계열의 핵심 인물은 南九萬의 『藥泉集』과 그의 문중 사람들의 문집들이 간행되었고 영조 즉위 후에도 소론 세력들은 여전히 집권하였기 때문에 崔昌大의 『昆侖集』, 吳道一의 『西坡集』 등이 간행될 수 있었고 심지어 소론 세력의 정신적, 사상적 지주 역할을 하였던 尹拯의 『明齋遺稿』가 英祖 8년(1732)에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소론 계열 인물들의 문집 간행은 계속되다가 英祖 17년(1741) 『童土集』의 간행을 마지막으로 교서관인서체자를 이용한 소론 계열 인물들의 문집은 간행되지 않는다.⁶⁶⁾

이후의 정국은 노론 세력이 주도해 나갔으며 正祖朝에 들어와 탕평책을 쓰면서 일부 남인과 소론 계열의 인물들이 등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권력의 핵심은 노론 계열이었다. 따라서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된 문집들은 노론 계열 인물들의 문집들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론사대신의 문집을 비롯하여 황경원, 김원행, 김종후 등 노론 계열의 핵심 인물들의 문집들이 간행된 것이다.

이처럼 교서관인서체자는 관부활자이기 때문에 당대의 권력을 분리시켜 설명

64) 『景宗實錄』 권6 景宗 2년 3월 壬子條.

65)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1』(서울: 동방미디어, 2000), 89-90.

66) 이후에 소론계열 인물의 교서관인서체자를 이용한 문집은 정조 말년에 간행된 李鍾徽의 『修山集』이 있다. 이종휘는 강화학과를 대표하는 학자로 그의 아들 李東稷이 정조대 탕평책으로 인해 발탁되었고, 大司諫이란 벼슬에 이르러서야 문집을 간행할 수 있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어져 관부활자로 간행한 문집들은 모두 당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명문고관들의 문집들과 그들과 교유하던 인사들의 문집들이다.

5. 結 言

이상으로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 주체와 형태적 특징, 당파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간행주체는 크게 王命, 사제관계, 후손, 지방수령으로 나뉘는 데, 지방수령의 주도로 간행하는 경우 지방수령이 인쇄자금을 교서관에 보내고 그 지방에서는 배포 등의 발행소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간행된 문집들의 특징은 문집인출의 部數와 附集을 들 수 있다.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의 저자들은 정계, 학계에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던 만큼 많은 부수가 필요하였다.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에는 부집의 형태를 띠는 문집이 다수 보이는데, 저자의 저술 양이 적은 경우와 경제적인 이유로 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문집을 간행할 때 함께 부집한 것이다. 교서관인서체자의 형태적 특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되는 데 글자획으로 肅宗年間 판본과 英祖初期의 판본이 쉽게 구별되었고 英祖中期에 들어서는 보자가 많이 혼입되었다가 英祖 36년(1760)에 새롭게 활자가 주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서관인서체자는 관부활자로서 당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당쟁으로 인하여 집권한 당파가 자주 바뀌었는데 집권한 당파에서는 같은 당색의 문집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교서관인서체자는 관부활자로는 처음으로 印書體를 도입하였고 관부의 서적출판보다는 私家의 개인문집에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교서관인서체자 사용은 이후 조선이 멸망하기 까지 인서체자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관부활자가 사가의 서적출판에 많이 이용된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그 영향력은 큰 것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교서관인서체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즉 鑄成時期, 系列, 用

度, 特徵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집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접근이었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元典>

- 「綱菴集」. 古活字本. 奎章閣所藏本(奎4113).
- 「昆侖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1136).
- 「農巖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10-81).
- 「童土集」. 影印本. 韓國文集叢刊(100).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 「亮谷遺稿」.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511).
- 「茅洲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4-60).
- 「夢悟齋集」. 古活字本. 藏書閣所藏本(K4-6007).
- 「本庵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10-88).
- 「北軒居士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894).
- 「三淵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10-83).
- 「三淵集拾遺」.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528).
- 「疎齋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62-93).
- 「松溪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994).
- 「雅亭遺稿」.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389).
- 「藥泉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921).
- 「芸窩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7.
- 「月塘先生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00-10).
- 「柳下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126).
- 「丈巖先生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46-가259).

- 「霧軒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43-8).
「鑄字事實」. 拓本. 奎章閣所藏本(奎10125).
「直菴集」. 影印本. 韓國文集叢刊(216).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8.
「退憂堂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10-78).
「圃陰集」. 古活字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3648-10-80).

<단행본>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柳鐸一. 「嶺南地方出版文化論考」. 부산: 世宗出版社, 2001.
孫寶基.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1, 2」. 서울: 동방미디어, 2000.
尹炳泰. 「朝鮮後期の活字와 冊」. 서울: 범우사, 1992.
前間恭作. 「朝鮮の板本」. 福岡: 松浦書店, 1937.
千惠鳳.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논문>

- 金元龍. “李朝後期の鑄字印刷.” 「郷土서울」 7號(1959).
金允美. “韓國文集의 編纂樣式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김윤제. “조선시대 문집 간행과 성리학.” 「한국사 시민강좌」 37(2005).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 研究(上).” 「韓國史研究」 3(1969).
서정문.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북악사론」 제3집(1993).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6집(1998).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활자 연구.” 「書誌學研究」 제31집(2005. 9).

<부록> 조사된 교서관인서체자본 문집

서명	저자	간년	형태사항	소장처	비고
樂田先生歸田錄	申翊聖	1684(序)	10行20字, 上3葉花紋魚尾	國中	
息庵先生遺稿	金錫胄	1684~1689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奎, 藏	
文谷集	金壽恒	1699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白軒先生集	李景奭	1700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國中, 奎	
澤齋遺唾	金昌立	1700	10行20字, 上下黑魚尾	奎	
瑞石先生集	金萬基	1701	10行20字, 無魚尾	國中, 奎	
南岳集	趙宗著	1704	10行20字, 上下2葉花紋魚尾	國中, 奎	
鶴谷集	洪瑞鳳	1706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補字가 많음. 附集 있음.
農巖集	金昌協	1709(序)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觀復菴詩稿	金崇謙	1709	10行20字, 上黑魚尾	奎	1799년 重刊함.
退憂堂集	金壽興	1710(跋)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葵窓集	李健	1712	10行20字, 無魚尾	奎	木活字로 기재된 곳이 많음.
尤庵先生文集	宋時烈	1719	11行20字, 上下2葉花紋魚尾	國中, 奎	補字가 많음.
雪海遺稿	李晚榮	1720年頃	10行20字, 上下2葉花紋魚尾	國中, 奎	補字가 많음.
壽谷集	金柱臣	景宗年間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國中, 奎	
藥泉集	南九萬	1723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晦隱集	南鶴鳴	1723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奎	
夢嚙集	南克寬	1723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昆侖集	崔昌大	1725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清冷子遺稿	崔守哲	1725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圃陰集	金昌緝	1726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國中, 奎	
西坡集	吳道一	1729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耐齋集	洪泰猷	1730	10行20字, 上下白魚尾	國中, 奎	附集 있음.
柳下集	洪世泰	1730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凝齋遺稿	朴泰觀	1731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明齋遺稿	尹拯	1732	10行20字, 上下百魚尾	國中, 奎	
三淵集	金昌翁	1732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夢悟齋集	沈尙鼎	1735	10行20字, 上下2葉花紋魚尾	國中	
崧岳集	林昌澤	1735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老村集	林象德	1735年頃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國中, 奎	補字가 대부분임.
怨菴集	申靖夏	1738	10行20字, 上下2葉花紋魚尾	國中, 奎	
童土集	尹舜舉	1741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東谿集	趙龜命	1741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附集 있음.
杜機詩集	崔成大	1741(序)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朝鮮後期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의 刊行에 관한 研究

迂齋集	趙持謙	1741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燕超齋遺稿	吳尙謙	1745(跋)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十淸集	金世弼	1748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重峰集	趙憲	1748	10行20字, 上黑魚尾	奎	補字 있음.
月谷集	吳瑗	1752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附集 있음.
丈巖先生集	鄭滯	1756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寒圃齋集	李健命	1758(跋)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夢窩集	金昌集	1758(序)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附集 있음.
桂南詩稿	李龜齡	1759(跋)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補字 있음.
東溪遺稿	李英輔	1759(序)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附集 있음.
疎齋集	李頤命	1759(序)	10行20字, 上黑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玉吾齋集	宋相琦	1760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竹軒集	金民澤	1760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附集 있음.
北軒居士集	金春澤	1760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二憂堂集	趙泰采	1760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打愚先生遺稿	李翔	1761	10行20字, 上白魚尾	藏	
晉菴集	李天輔	1762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悔軒集	趙觀彬	1762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陽谷集	吳斗寅	1762(後識)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陶谷集	李宜顯	1766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潛治先生集	朴知誠	1766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綱菴集	申琬	1766	10行20字, 上黑魚尾	奎	
牧谷集	李策鎮	1767(跋)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丹溪遺稿	河緯地	1768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一菴集	李器之	1768(序)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月塘先生集	姜碩期	1772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月汀先生別集	尹根壽	1773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松溪集	李?曾	1774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約軒集	宋徵殷	英祖年間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國中, 奎	
屏山集	李觀命	英祖後期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春洲遺稿	金道洙	英祖後期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晚靜堂集	徐宗泰	英祖後期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水村集	任瑩	英祖後期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凝齋集	李喜之	英祖後期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靜默堂集	李聖肇	1776(序)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凌壺集	李麟祥	1779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芸窩集	洪重聖	1784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露軒集	沈定鎮	1786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亮谷遺稿	李義吉	1789년(跋)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藏	
江漢集	黃景源	1790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標題紙 丁酉字
茅洲集	金時保	1790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久菴集	金就文	1791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附集 있음.
華谷集	黃宅厚	1794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奎	序文은 丁酉字
雅亭遺稿	李德懋	1796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商谷集	姜瑜	1798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本庵集	金鍾厚	1798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修山集	李鍾徽	1799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貞菴集	閔遇洙	1799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漢湖集	金元行	1799年頃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蒼霞集	元景夏	正祖年間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壽齋遺稿	李崑秀	正祖年間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淵庵遺迹	金若淵	正祖年間	10行20字, 上白魚尾	奎	
有心齋集	李和甫	正祖年間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洛涯金先生遺稿	金安節	1801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騏峰集	李時省	1802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補字 있음.
桐江遺稿	李奭	1810(序)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補字가 많음.
儉藏山人詩集	范慶文	1814(跋)	10行20字, 上白魚尾	奎, 藏	補字가 많음.
蘭溪先生遺藁	朴堧	1822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國中, 奎	補字가 많음.
青城集	成大中	1840(序)	10行20字, 上白魚尾	國中, 奎	補字가 많음.

